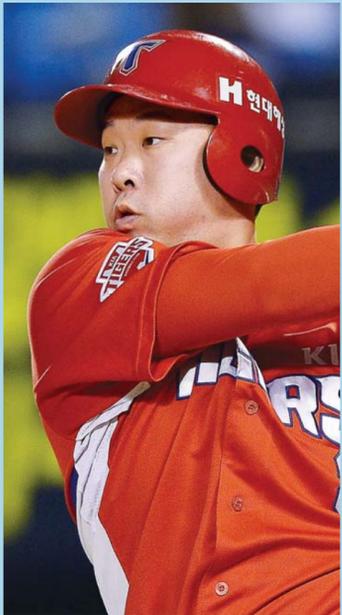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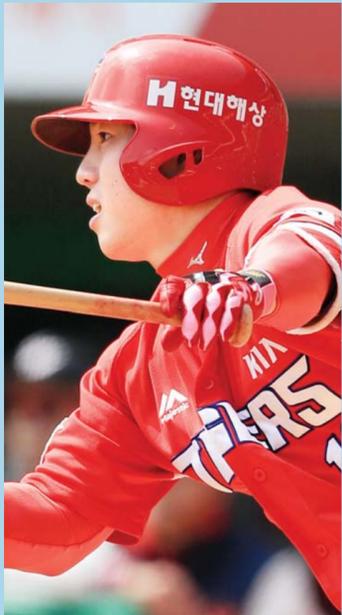
타선이 쏘아 올린 희망 실책에 '와르르~'



안치홍



이명기



이창진



최형우



박찬호



KIA, 키움전 5-13 패 ... 연패 끊은지 하루만에 수렁 5회 5점 빅이닝 만들기도 야수진 엇박자에 5점 헌납 타선 잔루 많고 마운드 위력 상실 ... 분위기 쇄신 시급

연패 탈출의 기쁨은 하루도 가지 못했다. 졸전 끝에 '호랑이 군단'이 다시 패배를 기록했다. KIA 타이거즈가 2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시즌 5차전에서 5-13패를 기록했다. 모처럼 빅이닝을 만들고도 승리를 내준 '사지 약몽'이 되살아났다. KIA는 앞선 27일 4-4로 맞선 9회초 재역전극을 연출한 뒤 새로운 마무리 문경찬의 프로 첫 세이브를 앞세워 9연패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실수 연발로 극적이었던 승리의 기세를 잊지 못했다.

KIA 선발로 나선 홍건희가 3회 선두타자 박동원에게 좌측 2루타를 맞은 뒤 1사 2루에서 이징후에게 우익수 키 넘기는 적시타로 먼저 실점을 했다. 홍건희는 4회 박병호에게 우월 솔로포를 맞으면서 두 번째 점수를 내줬다. 하지만 매 이닝 출루에 성공하고도 잔루만 남겼던 KIA 타선이 5회초 불을 뿜었다. 선두타자 박찬호의 중전안타가 신호탄이었다. 박찬호가 도루로 2루까지 향했고 이명기의 볼넷이 이어지면서 무사 1-2가 됐다. 이어 김선빈의 좌전 안타가 나왔고, 박찬호가 재치있게 홈에 들어오면서 득점까지 기록했다.

안치홍의 내야 땅볼 때 유격수가 홈 승부를 선택했지만 3루 주자 이명기의 손이 빨랐다. 이때 3루로 향하던 김선빈이 아웃되면서 1사 1루. 최형우가 좌중간 2루타로 안치홍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3-2 역전극을 연출했다. 끝이 아니었다. 이창진의 중전안타로 최형우가 홈에 들어왔고 상대의 송구 실책으로 2루로 뛰던 이창진이 3루까지 향했다. 박준태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면서 KIA가 순식간에 5-2로 승부를 뒤집었다. 하지만 모처럼 빅이닝을 만든 KIA의 기세는 다음 이닝을 넘지 못했다. 5회말 홍건희가 선두타자 임병욱의 타구를 잡으려다 뒤로 흘렀고 내야안타가 기록됐다. 박동원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한 홍건희가 송성문에게 볼넷을 내주고 무사 만루에서 강판됐다. 두 번째 투수로 나온 임기준이 이징후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급한 불을 껐지만 이번에는 수비가 찬물을 끼얹었다.

임기준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김세현이 김하성에게 땅볼을 유도하며 병살타가 만들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3루수 황윤호가 공을 떨구었고, 1루 약속구까지 하면서 두 명의 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5-4가 된 1사 2-3루, 샌즈의 타구를 유격수 김선빈이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냈지만 1루수 안치홍이 포구를 하지 못하면서 내야안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오면서 5-5 동점이었다. 김세현이 볼넷 뒤 안타를 맞으면서 하준영이 등판했지만 역시 적시타를 맞으면서 점수는 5-7로 벌어졌다. 사실상 5회가 승부처가 됐다. KIA는 이후 4차례의 공격에서 5개의 잔루만 남기며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8회 등판한 박정수가 4피안타 2볼넷 1탈삼진 5실점을 기록하는 등 마운드도 제 몫을 못해주면서 5-13패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3출루에도 웃지 못한 '추'

시애틀전 2안타 1볼넷 ... 잔루 9개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가 멀티 히트 활약을 펼쳤지만 영약가는 없었다. 추신수는 28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방문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6타수 2안타 1볼넷 2득점 활약을 기록했다.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간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318에서 0.319(91타수 29안타)로 소폭 올랐다. 추신수는 멀티안타와 볼넷으로 3차례 누상에 나가며 출루율 0.415를 기록했다. 다만 잔루를 9개나 남긴 점은 아쉬움이 남았다. 텍사스는 장단 20안타를 몰아쳐 시애틀을 15-1로 대파하고 5연패에서 탈출했다. 추신수는 1회초 시애틀 선발 마이크 리크에게 볼넷을 얻어내며 선취점의 발판을 마련했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볼넷 이후 계속된 무사 1, 2루에서 엘비스 앤드루스의 중월 3점포로 기선을 제압했다. 팀 타선이 폭발하는 동안 추신수의 방망이는 잠잠했다. 2회초 1사 2, 3루에서 유격수 뜬공, 3회초 2사 1, 3루에서는 2루수 직선타로 몰려났다. 추신수는 5회초 2사 1, 2루에서도 2루수 앞 땅볼에 그쳤다. 추신수는 다섯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신고했다. 10-1로 앞선 7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좌전 안타를 날렸고, 11-1로 앞선 9회초 선두타자로 나서 우전 안타를 터트렸다. 추신수는 타자 일순 뒤 다시 돌아온 2사 만루에서 중견수 뜬공을 때렸다. 결국 개인 잔루만 9개가 됐다. /연합뉴스



4강에서 멈춘 '안재현 돌풍'

남자탁구 16년만에 세계선수권 결승 도전 ... 스웨덴에 3-4 역전패

한국 남자탁구 대표팀의 막내 안재현(20·삼성생명)이 2019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선수권 대회(개인전)에서 16년 만의 은메달에 도전했지만 결승 진출 꿈이 좌절됐다. 세계랭킹 157위인 안재현은 27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헝가리에서 열린 대회 남자단식 준결승에서 세계 16위 마티아스 팔크(스웨덴)에게 3-4(11-8 7-11 11-3 4-11 9-11 11-2 5-11) 역전패를 당했다. 8강에서 대표팀 선배 장우진(미래에셋대우)을 꺾고 생애 처음 출전한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확보했던 안재현은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결승에 올랐다면 역대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남자 최고 성적인 2003년 파리 대회 때 주세혁의 은

메달과 타이틀을 이룰 수 있었지만 4강 진출자에게 주는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2017년 뒤셀도르프 대회 때 이상수(삼성생명)의 동메달에 이은 2회 연속 남자단식 메달이다. 지금까지 세계선수권 남자단식 메달은 2003년 주세혁 은메달과 1991년 지바 대회 김택수 동메달, 2005년 상하이 대회 오상은 동메달, 2007년 자그레브 대회 유승민 동메달, 2017년 뒤셀도르프 대회 이상수 동메달 등 5명뿐이었다. 16강에서 일본의 간판인 세계 4위 하리모토 도모카즈를 누르는 이변을 일으켰던 안재현이 가파른 상승세를 4강에서는 이어가지 못했다. 팔크를 맞아 첫 세트에 4-4, 5-5, 7-7로 시소게임을 펼친 안재현은 강한 포핸드 드라이브 공세로

9-8에서 연속 3점을 따내 1세트를 가져갔다. 팔크의 공세에 휘말려 2세트를 내준 안재현은 3세트 들어 강한 공세로 6-3 리드를 잡았고, 신들린 공격으로 연속 5득점하며 게임 스코어 2-1로 앞섰다. 하지만 팔크는 빠른 공세로 4세트를 11-4로 따냈고, 5세트에도 2-7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연속 3점을 뽑은 뒤 7-9에서도 연속 4점을 쏟아낸 뒤 심으로 11-9로 승리했다. 게임 스코어 2-3으로 밀린 '강심장' 안재현이 두독한 배짱으로 6세트를 따냈다. 안재현은 6세트에 4-2에서 좌우 구석을 찌르는 공격으로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은 채 11-2로 이겨 승부를 최종 7세트로 몰고 갔다. 자신감을 되찾은 안재현은 상대 범실을 유도하며 7세트 2-0 리드를 잡았고, 4-2로 앞서 승리 기도에 부풀었다. 그러나 팔크가 2-4에서 연속 8점을 뽑는 놀라운 활약으로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고, 10-5에서 마지막 점을 뽑아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특급 제구' 류현진

MLB 삼진·볼넷비율 16.5개 1위 ... 피출루율 0.262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2019시즌 삼진/볼넷 비율 16.5개의 압도적인 기록을 찍고 있다. 아직 시즌 초반이고, 류현진은 한 차례 로테이션을 걸러 규정이닝을 채우지 못했지만 제구에 대한 자신감은 충만하다. 기록이 류현진의 자신감을 더 키운다. 류현진은 27일까지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 2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 129명 중 삼진/볼넷 비율 1위에 올라있다. 2위 맥스 셔저(워싱턴 내셔널스)의 삼진/볼넷 비율은 류현진보다 한참 낮은 10.8이다. 류현진은 이 부문 공동 3위 펠릭스 에르난데스(시애틀 매리너스)와 매디슨 벡가너(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상 7.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삼진/볼넷 비율을

과시하고 있다. 류현진은 올 시즌 5경기에 선발 등판해 27.1이닝을 던지는 동안 볼넷 2개만을 내줬고 삼진은 33개를 잡았다. 9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에서 왼쪽 내전군(사타구니 근육) 통증으로 조기 강판(1.2이닝 2피안타 2실점)했던 류현진은 21일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복귀해 삼진 9개(5.2이닝 6피안타 2실점)를 잡았다. 27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전에서는 삼진을 10개(7이닝 8피안타 2실점)로 늘리며 승리투수가 됐다. 류현진이 빅리그에서 삼진 10개를 잡은 건, 2014년 7월 14일 샌디에이고전 이후 5년 만이다.

올해 류현진은 5경기에서 모두 홈런을 맞았다. 피홈런 탓에 피장타율은 0.467로 20이닝 이상을 던진 내셔널리그 투수 64명 중 51위로 처졌다. 그러나 볼넷 허용을 철저하게 막은 덕에 피출루율은 0.262로 내셔널리그 2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 중 8위다. 류현진이 올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다. 류현진은 올해 단 한 번도 3실점 이상을 한 적이 없다. 삼진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고무적이다. 류현진은 올해 9이닝당 삼진 10.87개로 내셔널리그 10위에 올라있다. 평균자책점 1.97의 놀라운 성적을 거둔 지난해 9이닝당 삼진 수 9.73개보다 많다. /연합뉴스